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국입국 신속통로 대상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관련 긴급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에서 중국입국을 위해 출국하는 모든 탑승객은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한 '코로나 검사 지정의료기관'(이하 '중측지정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하여야만 항공기 탑승이 허용됨을 공지하였습니다. (8.24일자 시행)

* 중측지정의료기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kr.chineseembassy.org/chn/lsfw/lstzhtx/t1809084.htm>) 또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https://bio.visaforchina.org/SEL3_K0/) 에서 확인가능

3. 아울러, 우리정부에서는 한중 신속통로를 활용하는 기업인의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지정병원(이하 '신속통로지정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다만, 현재 상기 신속통로지정병원 모두가 중측지정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며, 최근 중측지정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신속통로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이 중국행 항공기 탑승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5. 이에 대하여 정부내 유관부처에서는 동 사안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별도의 추가적인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신속통로를 활용하여 중국입국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및 개별 기업인은 중측지정의료기관에 포함된 신속통로지정병원에서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측지정의료기관에 포함된 신속통로지정병원: 무역협회 공지사항(

<https://www.kita.net/asocGuidance/notice/noticeDetail.do?pageIndex=1&nIndex=1801658>) 또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

<신속통로 관련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가능 기관(8.30일 기준)>

1.순천향대학 부속 서울병원, 2.강북삼성병원, 3.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 4.카톨릭대학 인천성모병원, 5. 예수병원, 6.제주한라병원, 7.순천 성가롤로병원, 8.창원파티마병원, 9.국립중앙의료원, 10.경희대학교병원, 11.전남대학교병원, 12.명지병원, 13.울산대학교 병원, 14. 부산대학교병원 등 총 14개

중요: 상기 기관은 중측지정의료기관과 신속통로지정병원 변경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PCR 검사 이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

6. 상기 변경된 사항과 관련하여 귀 기관 회원사 등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 주실 것을 협조요청 드립니다. 끝.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통상자원부



수신자 무역협회장, 대한무역진흥공사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한상의, 외교부장관(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 외교부장관(영사서비스과장)

행정사무관

이주영

과장

전결 2020. 8. 31.
정상용

협조자

시행 동북아통상과-2788

(2020. 8. 31.)

접수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 <http://www.motie.go.kr>

전화번호 044-203-5693

팩스번호 044-203-4805

/ judylee@motie.go.kr

/ 비공개(2,5)